光州日報

제1764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월 4일 (음력 11월 16일) 목요일

목포는 지금
조·기·파·시

지금 목포는 조기 잔치가 한창이다. 지난 200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3년 연속 조기 풍어가 목포 서민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산도 해역에 '조기 반 물 반'의 황금어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당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조기가 많이 잡혀 배에서 작업을 못하고 그물 채 싣고와 목포항 부두가에서 고기를 떼어 내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올해도 유자망 어선 50여척이 만질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부인은 물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까지 하루 평균 1천여명의 여성들이 선창으로 몰리고 있다.

수산업 관계자들은 이들이 가져가는 임금이 한달 평균 30억원대로 조기 풍어가 시작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줄잡아 150억원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목포지역 식당가와 유흥업소에서는 때 아닌 구인난을 겪고 있다. 북항에서 식당을 운영하

불법조업 단속효과…3년째 만선
어선 가득차 그물째 끌어 입항
조기선별 작업 일당 24만원까지

1개월에 한 척당 7회 정도 만선으로 귀환, 썰렁하던 목포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만선 때마다 20kg들이 상자 약 550개(약 11t)씩 조기를 잡아 목포수협에 위판하고 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요즈음 목포 선창가에서는 하루 평균 1천여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물에 붙은 조기 손질에 여념이 없다. 조기 손질 작업은 그물에 걸린 조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낸 뒤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하는 선별 작업으로 이어진다.

인건비는 시간당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새벽부터 밤 늦도록 계속된 작업끝에 손에 쥔 임금은 하루 평균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4만원에 달한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한달 20일 가량의 조기 손질만으로 400만원이 넘는 목돈을 고 있는 양귀현(목포시 연산동)씨는 "정보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해도 식당 한달 급여가 조기 손질 작업 임금 일주일 분에 불과해 식당에서 일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기 풍어의 이유는 뭘까. 주된 원인은 조기 남획에 대한 정부 단속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95년부터 수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해 안강망 440여척과 유자망 251척 등 700여척을 감척하고 소형기선저인망(고데구리) 단속을 강화한 것이 조기 풍어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어족자원의 씨를 말렸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풍어의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광주 발전을 위하여" 3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마형렬)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지병문·김동철 국회의원, 강정채 전남대 총장, 명동성 광주지검 검사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새해 지역 발전을 다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준공영제 前 조사자료로 "압도적 만족" 홍보
광주시 여론왜곡 비난

광주시가 준공영제와 환승체계 시행 이전에 실시한 시민설문 결과를 근거로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일자 e뉴스레터(광주시 인터넷신문)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86% '바람직',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12월 1일~22일 1,300명 대상'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배포했다. e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8만4천여명의 시민들에게 e메일로 전달된다. e뉴스레터에 따르면 준공영제에 불만족스럽다는 시민은 100명당 한명꼴도 안되는 0.8%에 불과했다.

e뉴스레터는 특히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마치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가 준공영제와 환승체계 도입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인 것 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광주시가 지난달 21일 준공영제와 이에 따른 새로운 환승제를 시행하기 훨씬 전에 실시된 것으로 실제 시행된 준공영제와 환승제에 대한 시민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가 광주대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 1천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e뉴스레터 등을 통해 마치 설문조사가 지난달 2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진행된 것처럼 표시해, 준공영제 시행 이후 새로운 환승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결국 시의 홍보물을 받아본 시민들은 준공영제로 인한 환승의 불편이나 노선개편에 따른 혼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회사원 정모(40·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는 "설문조사 시기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준공영제 시행 이전의 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기에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공항 폐쇄·지하철 2호선 반대"

與 김동철의원 밝혀…광주시 강력 반발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이 3일 "올해부터 광주지역 의원들과 함께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과 광주공항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의원의 주장은 군 공항 이전과 동시에 광주 민간공항을 폐쇄한다는 의미지만 광주시가 민간공항의 폐쇄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 "지하철 1호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 인구 200만명 이상일 때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 인구는 140만명이다./박지경기자 jkpark@

社告

'광일춘추' 필진 바뀝니다

지역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공동진행하는 '광일춘추'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본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제주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전북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가 공동 게재하는 '광일춘추'는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최고 필진들이 참여, 수준높은 칼럼을 선보여 왔습니다.

4일부터 독자들을 찾아가게 될 이번 '광일춘추' 필진들은 전문 지식과 날카로운 관점이 담긴 칼럼을 통해 독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것입니다.

고원정 소설가

김승환 총장

이해인 수녀

임동욱 부소장

◇고원정 소설가
▲경희대 국문과 졸업 ▲중앙일보 신춘 문예 '거인의 잠' 당선 ▲저서 '빙벽', '최후의 계엄령', '한국인' 등.

◇김승환 아시아태평양이론 물리센터 사무총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 박사 ▲코넬대 물리학과 연구원 ▲포스텍(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이해인 수녀
▲서강대대학원 종교학 석사 ▲부산 성베네딕도수녀회 수녀 겸 총비서 ▲저서 '눈꽃 아가','꽃은 흩어지고 그리움은 모이고' 등.

◇임동욱 한국대통령학연구소 부소장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초빙교수 ▲충주대 행정학부 교수

光州日報社